

# 광주대 태권도 강팀 저력 보여줬다

### 연맹회장배 전국대회 조하은 1위·김유정 2위·강민아 3위...단체전에선 2위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태권도부가 전국대회에서 강팀의 저력을 발휘했다.

광주대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제20회 여성가족부장관기 겸 제19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배 전국태권도대회' -73kg에서 조하은(2년)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57kg에 출전한 김유정(2년)과 +73kg 강민아(1년)는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광주대는 단체전에서도 2위를 차지하며 대학부 태권도 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광주대 태권도부는 지난 4월 경북 안동체육관에서 개최된 '2021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어 5월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제51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는 대학일반부 -63kg 안지원(2년)과 -62kg 유효경(1년)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받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제20회 여성가족부장관기 태권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광주대 태권도부.

<광주대 제공>

## '영점' 잡은 NBA 브루클린 3연승 신바람



4일 미국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NBA 브루클린과 애틀랜타 경기에서 브루클린의 케빈 듀란트(왼쪽)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점'을 잡은 미국프로농구(NBA) 브루클린 네츠가 애틀랜타 호크스를 잡고 3연승을 달렸다. 브루클린은 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2021-2022 NBA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동부 컨퍼런스 준우승팀인 애틀랜타에 117-108로 이겼다. 브루클린은 동부 강호로 손꼽히지만, 시즌 초반 예년만 못한 공격력에 '퐁당퐁당 승리'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주말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경기에서 구단 사상 최고 야투 성공률인 65.3%를 기록하며 첫 연승을 기록하던, 이날 애틀랜타전에서는 3점 22개를 폭격하며 또 한 번 승리를 거머쥐었다. 케빈 듀란트가 승부처였던 3쿼터에 쏟아 부은 15점을 포함해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32점을 책임지며 브루클린의 승리를 맨 앞에서 이끌었다. 듀란트는 어시스트 7개, 리바운드 5개도 곁들였다.

16점 11어시스트로 더블더블을 기록한 제임스 하든과 3점만으로 18점을 올린 조 해리스의 활약

도 빛났다. 애틀랜타에서는 디안드레 헌터가 26점을 올리며 분전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영건' 조던 폴의 득점포를 앞세워 홈에서 샐럿 호니츠를 114-92로 제압했다.

2연승을 달린 골든스테이트는 6승 1패로 유타 재즈와 서부 컨퍼런스 공동 1위에 자리했다.

골든스테이트의 '에이스' 스테픈 커리는 이날 15점을 올렸으나 대부분을 승부가 골든스테이트 쪽으로 많이 기운 4쿼터에 넣었다. 승부처였던 3쿼터까지는 5득점에 그치며 부진했다.

대신 프로 3년 차 조던 폴이 31점을 쏘며 선배들을 승리로 이끌었다.

폴은 3쿼터 막판 골든스테이트가 10점 차로 달아나게 하는 자유투 2득점과 격자를 16점으로 더 벌리는 레이업 득점을 올렸다.

경기 종료 3분여를 남기고는 스티에 이은 속공 레이업으로 107-92를 만들어 골든스테이트의 승리를 예감게 했다. /연합뉴스

## V리그에 부는 아프리카 열풍

### 케이타·모마·다우디 삼총사 프로배구 맹활약...아프리카 출신 한국행 잇따를 듯



KB손해보험 케이타



GS칼텍스 모마



한국전력 다우디

프로배구 V리그에 아프리카 대륙 열풍이 뜨겁게 분다.

두 시즌째 뛰는 '말리 특급' 노우모리 케이타(등록명 케이타-KB손해보험)와 3시즌 연속 코트를 누비는 우간다 출신 다우디 오켈로(등록명 다우디-한국전력)는 물론 새내기인 '카메룬 국가대표 주포' 레티치아 모마 바스코(등록명 모마-GS칼텍스) 삼총사가 V리그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렸다.

케이타는 지난 3일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벅어택 10개, 서브 에이스 3개, 블로킹 4개를 각각 기록하며 시즌 첫 트리플크라운(후위 공격-서브-블로킹 각 3개 이상)을 달성하며 31점을 퍼부어 팀 승리를 이끌었다.

모마 역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63.63%의 높은 공격 성공률로 양 팀 합해 최다인 31점을 올려 승리에 앞장섰다.

현대캐피탈에서 2년을 뛰고 이번 시즌엔 대체 선수로 한국전력 유니폼을 입은 다우디는 뒤늦은 입국과 2주 격리로 처절한 페이스를 서서히 끌어올리며 팀의 주포로 자리매김 중이다.

미국과 유럽, 중남미 선수들이 주를 이룬 V리

그 외국인 선수 사이에서 아프리카 대륙 선수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2005년 프로 출범 후 아프리카 대륙 1호 선수는 남자부 OK저축은행(현 OK금융그룹) 소속으로 뛴 모로코 출신 모하메드 엘 하치데디였다.

2019-2020시즌에 온 다우디가 2호, 2020-2021시즌에 데뷔한 케이타가 3호 선수다.

여자부에선 2017-2018시즌, 2018-2019시즌 각각 GS칼텍스, 도로공사에서 활약한 세네갈 출신 파투우 듀카가 V리그에 온 아프리카 대륙 선수의 선구자다.

모마는 여자부 2호 아프리카 선수다.

케이타와 다우디의 최대 장점은 상상하기 어려운 높은 점프력에 있다. 한국배구연맹이 펴낸 미디어가이드를 보면, 2m가 넘는 키에 케이타는 서전트 점프 71cm, 다우디는 74cm를 자랑한다.

가만히 서서 양팔을 뚝 뻗었을 때 측정된 스탠딩 리치가 270cm(케이타), 266cm(다우디)로, 두 선수가 최대 도약 후 정점에서 때리는 최대 높이는 340cm 이상으로 치솟는다.

블로커를 압도하는 높이에서 내리꽂는 강타가 케이타와 다우디를 더욱 빛나게 한다. /연합뉴스

케이타는 화려한 득점 세리머니, 다우디는 동료를 배려하는 착한 인성으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

모마는 지난해 GS칼텍스의 3관왕을 이끈 메레타 리츠보다는 20cm가량 키가 작다.

그러나 60cm에 이르는 서전트 점프 탄력과 단단한 상체 근육을 뽐내며 여자부에서는 보기 드문 강력한 파워를 선사해 3일 현재 공격 종합 1위(성공률 48.75%), 오픈 공격 1위(성공률 49.29%), 득점 2위(131점)를 질주한다.

모마는 미국 출신 야스민 베다르트(등록명 야스민-현대건설), 켈시 페인(등록명 켈시-도로공사) 등과 더불어 이번 시즌 최고 외국인 공격수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배구연맹에 따르면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 지원한 아프리카 출신 선수는 2019-2020시즌과 2020-2021시즌 각각 4명에서 2021-2022시즌에는 7명(남자 5명-여자 2명)으로 조금 늘었다.

V리그 인기와 가치가 좀 더 세계에 알려지고, V리그에서 뛰는 아프리카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진다면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의 한국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신진서·박정환 앞세운 한국 LG배 3연패 도전

신진서·박정환 '원투 펀치'의 활약으로 전성기를 맞이한 한국 바둑이 이번엔 LG배 3연패에 도전한다.

한국 바둑 랭킹 1~3위인 신진서·박정환·변상일 9단과 랭킹 5위 신민준은 7일~8일에 걸쳐 온라인으로 열리는 제26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8강전에 출격한다.

한국이 4명, 중국 3명, 일본 1명이 출전하는 LG배 8강전은 첫날인 7일에는 박정환-겨제 9단, 변상일-미워팅 9단, 신민준-양민신(이상 중국) 9단의 3경기가 펼쳐진다.

8일에는 신진서-이치리키 료(일본) 9단의 1경기만 열린다.

상대 전적은 박정환이 커제에게 14승 13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고 변상일은 미워팅에게 2승 3패, 신민준은 양민신에게 1승 4패로 뒤져 있다.

또 신진서는 이치리키에게 3전 전승을 기록 중이다.

8강전 승자가 모두 가려지면 다시 추첨한 뒤 9일과 10일 4강전이 열린다.

LG배 결승전은 내년 2월 3분기로 우승자를 가린다.

삼성화재배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메이저 세계기전인 LG배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이 나란히 11번씩 우승했고 일본이 2번, 대만은 1차례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최근 2년간은 한국 기사가 우승을 석권했다.

'형제 대결'이 벌어진 제24회 대회 결승에서 신



LG배 8강전에 출전하는 태극 전사들. 신진서(왼쪽 위 시계방향으로)·박정환·신민준·변상일 9단. <한국기원 제공>

진서가 박정환을 2-0으로 물리쳤고 25회 결승에서는 신민준이 커제에게 2승 1패로 역전승했다.

또한 한국은 올해 열린 메이저 세계대회에서 3차례 우승을 차지해 1회 우승에 그친 중국에 앞서 있다. 반격을 노리는 중국 기사들은 이번 LG배 8강 한-중전에서 격렬한 전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LG배 우승상금은 3억원, 준우승 상금은 1억원이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총장로관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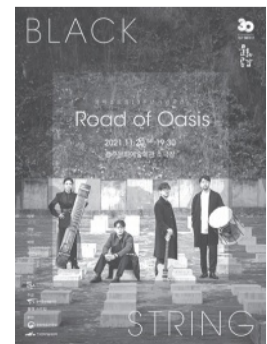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이터널스
- 2관 이터널스
- 3관 배움 2: 햇 데어 비 카니지
- 4관 이터널스
- 5관 이터널스
- 6관 이터널스, 보이스
- 9관 이터널스, 고장난 론

7관 씨네케틀  
고장난 론, 애프터: 관계의 함정  
용과 주근깨 공주, 침묵의 숲  
극장판 핑구는 꽃밭의 겨울나무, 왕국과 영수 내명의 왕자들

8관 씨네케틀  
둔



GAC기획공연 방방곡곡 문화공간  
블랙스트링 10주년 콘서트 Road of Oasis  
일시 : 2021. 11. 20.(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7



GAC기획공연 포시즌  
실내외 시리즈 현악 4중주  
일시 : 2021. 10. 30.(토) ~ 11. 06.(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 062-613-8235

